

협회 한국계육협회 (Korea Broiler Council)

발행인 : 김 홍 국 편집 : 남 두 희, 이 재 하  
(우137-044)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

☎ (02)536-9855~6 FAX(02)595-6028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 (02)263-3598

제2권 제12호 통권18호

###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시험대에 오른 닭고기 산업

세계에서 가장 싼 닭값, 이는 지난 9월에 필자가 어느 농업관련 주간지의 월요시론에 기고한 글 제목이다. 그때 생계 kg당 5백원하는 것을 보고 이만하면 미국이나 태국보다도 저렴하니 WTO체제에서 충분히 경쟁할만 하다고 자조섞인 우려를 크게 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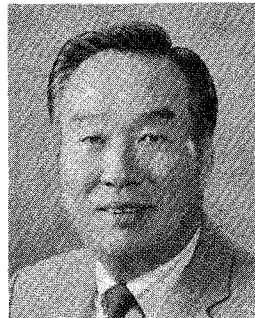
병아리 한 마리 값과 비슷하고 평균 생산비의 절반수준이며 반년 전의 1/4로 떨어진 생계가격, 게다가 이런 불황국면이 오래 지속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산업의 경기는 순환하게 마련이다.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하는 것이다.

대개 수급변화에 따라 호황, 불황이 교호적인 패턴으로 순환한다. 그런데 한국의 닭고기 산업은 그 동안 매우 불규칙한 경기순환을 보여왔다. 마치 "××년 널뛰기"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기껏 몇 달 주기로 가격이 폭등, 폭락하여 한탕주의가 등장하고 산업 구석구석에서 제로섬게임의 아귀(餓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경험하는 불황은 그 기간이 전보다 훨씬 길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다. 몇 달이 아니라 반년 또는 1년까지 지속될지도 모른다. 도대체가 경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왜 그럴까? MMA 물량 수입 때문인가? 살모넬라 등의 이유로 소비가 위축된 때문인가? 이번의 경우는 그 원인이 그리 단순치가 않다.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복합적인 요인이 새롭게 작용하



박 영 인 회장  
통합경영연구회, 본회고문

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계육산업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그 중에서도 불황위험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건설한 계열주체의 경영상황이 말미아니다.

전과 같으면 개별 사육농가가 파산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앞으로 부도나는 계열체계가 속출할까 걱정이다. 이판에 사이비 계열업체가 아예 그 자취를 감추었으면 좋겠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과일 재고의 변질우려도 문제이다. 또 내년 7월이면 닭고기 수입이 완전 개방된다.

한국 닭고기 산업은 지금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육중심의 단독 경영으로부터 삼장통합(三場統合)의 계열경영체제로 전환하는, 그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완전경쟁 세계에서 과연 견딜만 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

아무튼 시험결과는 반드시 합격이어야 한다. 당면한 현실에 너무 낙망할 필요는 없다. 지난날 얼마나 많이 겪어본 어려움인가?

1997년~1998년 혼란기와 1999년~2000년의 조정기를 지나야 비로소 21세기의 안정기에 진입할 것 같다.

완전통합체계, 각 부문의 생산성 극대화 및 통합주체의 경영효율화가 이루어지는 날 시험기간은 끝날 것이다.